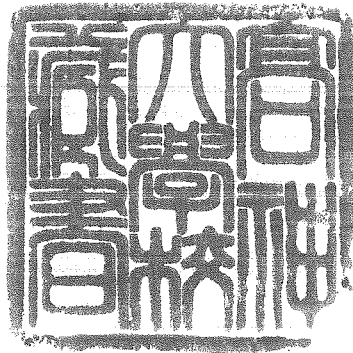


A3CT  
290.6  
78597

1999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개혁자 루터의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에  
대한 견해 연구



기독교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역사신학 전공

김 우 권

 고신대학교



DM00005247

개혁자 루터의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에  
대한 견해 연구

지도교수 최 형 결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9년 12월 일

기독교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역사신학 전공

김 우 권

김우권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홍식 (인)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장 \_\_\_\_\_ (인)

1999년 12월 일

기독교신학대학원대학교

# \* 목 차 \*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3
II. 16세기 독일의 시대적 배경 .....	4
1. 정치적 배경 .....	4
2. 경제적 배경 .....	6
3. 사회적 배경 .....	8
1) 한스 뷔의 사회주의 운동 .....	10
2) 분트슈 운동 .....	11
3) 급진파 운동 및 기사의 난 .....	14
III. 루터와 종교개혁의 배경 .....	16
1. 로마 카톨릭의 전통 .....	16
2. 중세 스콜라주의 및 인문주의 .....	17
1) 스콜라주의 .....	17
2) 인문주의 .....	18
3. 중세 후기 신비주의 .....	19
4. 교황권의 쇠퇴와 민족국가의 출현 .....	21

**IV. 루터의 종교개혁사상과 농민전쟁 ..... 23**

**1. 루터의 종교개혁사상 ..... 23**

1) 루터의 생애 ..... 24

2) 루터의 개혁사상 ..... 26

**2. 농민전쟁 ..... 31**

1) 발생배경과 원인 ..... 32

2) 전개 및 발전과정 ..... 33

3) 뮌처의 사상과 개혁운동 ..... 37

4) 루터와 뮌처와의 관계 ..... 42

**V. 결 론 ..... 45**

**\* 참고문헌 \***

# I. 서론

## 1. 연구 목적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95개조에 달하는 변죄부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내어걸었을 때 중세 카톨릭교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교회가 힘차게 시작되었다.<sup>1)</sup>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미가 각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신교에 속해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후의 서구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종교개혁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나 중요성이 종교개혁자들이나 종교개혁의 사상이 무조건 옳다는 역사이해는 정당하지 못하다. 루터의 개혁운동은 구질서의 핵심인 카톨릭을 비난하고 공격하긴 했지만, 루터나 루터의 추종자들만이 유일한 반대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로 보면 루터를 위시한 개혁가들은 처음 시작했다는 의미는 물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개혁 세력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루터파나 칼빈파가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의 운동이나 신학 사상이 후대에 가장 큰 세력으로 확장되어 하나의 기독교 분파로 성장했다는 사실 때문이지, 그들의 개혁운동이 다른 것보다 더 큰 정당성을 가진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군운동이 있은후 14세기 이후로 국가적 통일기운이 각국에서 발생하였고 일반 국민들도 국민국가 건설을 갈망하고 있는 상황<sup>2)</sup>에서 우선 우리는 종교개혁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이 루터를 위시한 개혁가들에게 동조해서 하나의 사회적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과 종교개혁은 당시 사회의 사회적 욕구였고, 루터는 그것을 이끌어내어 분출하는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독일의 국가적 배경과 1454년 구텐베

1. 차중순, 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236.

2. 박경민, 크리스토포교사, (서울: 도서출판 청수, 1999), p.214.

르크에 의한 인쇄술의 발명으로 1516년 독일어 성경이 인쇄되고 배포되어<sup>3)</sup> 이 모든 것을 도와 개혁적 사회세력이 등장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종교개혁이 등장하고 성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어쨌든 이미 시작된 종교개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유럽을 강타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안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루터는 카톨릭에 대응할 만한 신학논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콜라 신학에 대응하는 개혁신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카톨릭에 대응해서 예배의식이나, 교리교육 또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새롭게 되어져야하는 전제는 있었으나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루터가 가진 것이라고는 십자가의 신학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원칙뿐이었다. 이것은 카톨릭을 틀렸다고 비난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 자체로 새로운 교파를 만든 다거나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것에는 아직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변화의 욕구는 강했다. 구질서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동참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가 있었다. 구질서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즉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은 루터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모두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그런 변화의 욕구나 개혁의 성향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경우가 바로 농민전쟁과 토마스 뮌처의 사상이다. 뮌처는 농민들의 봉기를 주도함으로써 사회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으며<sup>4)</sup> 그들은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했고, 그래서 무력으로 구질서를 파멸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스스로 천명했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서 급진적 개혁운동인 농민전쟁에 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카톨릭과 루터와 그리고 당시에 가장 많이 수탈 당하던 농민계층의 3 무리

3. Ibid, p.209.

4. 손규태,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뮌처, 기독교사상, 1990년 10월호, p 27.

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어떤 요인들이 이 당시의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좀더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특히 기독교가 사회 변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I 장은 서론이며, II 장에서는 16세기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루터의 종교개혁이 발생한 원인과 성공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배경에서 한스 뷔의 사회주의 운동과 분트슈 운동과 급진파 운동 및 기사들의 반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III 장은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로마카톨릭의 전통에 의거한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전통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주의의 신학 전통, 에라스무스가 대표인 인문주의와 또한 루터에게 영향을 준 에크하르트와 타울러의 신비주의 사상과 그리고 교황권의 쇠퇴로 봉건주의에서 벗어난 민족국가의 출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루터의 생애와 성서관, 의인론, 그리고 교회관을 살펴보고, 1517년 비텐베르크의 95개조의 논제와 1520년에 출판된 루터의 '3대 개혁논문'이라고 말하는 '독일 귀족에게 고향', '교회의 바벨론적 포로', '기독교인의 자유'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개혁사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농민전쟁의 발생원인과 발전과정 그리고 뮌처의 참여와 루터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또한 두사람의 사상을 비교·분석해 본다.

V 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II. 16세기 독일의 시대적 배경

경제적 혁명과 사회적 변화는 정치적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배자는 중간 계급의 경제적 후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로 중세 봉건제도가 붕괴되어갔다. 이것은 종주권 의식에서 주권의식으로 지배 개념이 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봉건제도가 쇠퇴함에 따라 중앙집권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sup>5)</sup> 또 종교개혁으로 유럽에서 종교적인 관습이 달라지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혁명에 의해 개신교도 카톨릭도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다가왔다. 팽창하는 상거래의 압력에 굴복하여 물물교환이나 토지재산에 중점을 둔 낡은 경제적 사고 방식은, 자본투자로 더욱 많은 자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화폐경제에 밀려났다. 상인의 대부분은 명성, 권력, 나아가서 지위까지도 손에 넣었다.

그리고 사회의 계급은 귀족 계층, 성직자 계층, 농민 계층 등 중세사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계급이 있었으나, 새로운 계급으로 중간 계층이 새 유럽을 형성하게 되었다. 귀족 계층은 전 유럽을 통하여 많은 군사력을 상실하긴 했으나, 신봉계급에 못지 않게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위세를 보이고 있었다. 성직자들은 유럽에 널리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중앙집권 체제에 종속되고 있었다. 중간 계급자들은 상인계급으로 은행가, 법률가, 금광주, 선장들과 또 수공업 길드 지배인들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들은 도시의 제반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이익을 추구하였다.<sup>6)</sup>

농민 계층은 법적으로 마련된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자유농, 반자유농, 그리고 전혀 자유가 없는 농민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배경, 경제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 1. 정치적 배경

십자군 전쟁, 백년전쟁 등으로 중세 봉건제도가 붕괴되어갔고, 14세기 이후로

5. 배본철, 기독교회사, (서울: 문서선교 성지원, 1995), p.345.

6. Ibid. p.343.

부터는 봉건제도가 쇠퇴함에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중세 말기에 이르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국가들도 중앙집권적인 전제군주 정치체제로 발전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유럽전체의 이익보다 자기나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sup>7)</sup>

한창 종교개혁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당시,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가장 카톨릭적 국왕인 프랑스와 1세(1515-1547)는 왕권강화와 세력확장을 위해 신성로마제국의 카톨릭 황제인 카알 5세(1519-1556)에 대항하여, 이교국가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회교 군주 술레이만 1세(1520), 그리고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과 동맹을 맺었고, 또한 통치자들은 국교회사상으로 국가에서 교회를 통치하고자 하였다.<sup>8)</sup> 또 영국의 헨리 8세(1491-1547)는 국가교회를 세움으로써 국왕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장도 겸임함으로써 교황청의 통치를 거부하였다.<sup>9)</sup>

중앙집권체제로 발전된 신성 로마제국인 독일은 사실상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상의 관념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신성 로마제국은 전통적으로는 로마적이고,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적이며, 언어와 지역으로 볼 때는 대체로 독일적이었다. 이 제국은 명목상으로는 하나였으며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으나 희망이 없을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실제로는 300여개에 이르는 정치적인 단위로 분할되어 세속과 교회가 지배하는 나라들이 난립하고 공작령, 백작령, 그리고 자유도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sup>10)</sup>

제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7인의 제후<sup>11)</sup>였다.<sup>12)</sup> 그들은 황제를 선거하였고 봉건적인 신종의 예를 다하여 제위를 승인하고는 있었으나, 황제가 권한을 행사하려 하면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당시의 교회는 명확한 영토의 구분은 할 수 없었을지라도 하나의 국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

7. 박경민, 크리스트 교사, op. cit., p.214.

8. Ibid.

9. Ibid, pp.214-215.

10. 배본철, 기독교회사, op. cit., p.345.

11. 7인의 선제후는 엘베에서 3명, 라인에서 4명이다. 엘베에서는 보헤미아의 왕, 삭소니의 선제후,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였으며, 라인에서는 라인의 팔라틴 백작과 마인쯔, 트리에르, 켈른의 대주교이다.

12. 토마스 M. 런제이, 이형기·차중순 역, 종교개혁사(1), (서울: 장로교 출판사, 1996), p.50.

서 이 국가에는 교황이라는 군주가 있고, 고위 성직자라는 제후가 있었으며, 따라서 서구의 모든 기독교국은 그 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회에는 종교회의라는 입법부가 있고, 교회법이라는 헌법이 있었으며, 교황청이 법원과 재무부를 겸하고 있었다. 교회는 전쟁도 하고, 조약도 체결하며, 세금도 징수하는, 하나의 강력한 국가의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교회의 광대한 권력을 오랜 동안의 전통에 바탕하고 성문법의 형식을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권력에 대항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왕들은 각자의 권한이나 재원에 교회의 손이 미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학자들은 교리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독일은 중부 유럽에 대한 터어키의 위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에서의 종교운동은 군사동맹에 의해 연결되기에 이른다.

헷세의 영주인 필립은 개신교가 동맹에 의해 보호된다고 제안했으며, 이로 인해 슈말칼덴 동맹이 형성되었다. 개신교 세력의 슈말칼덴 동맹은 황제 편인 합스부르크가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강력한 보호막 구실을 해주었다. 만일 그 당시에 독일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다면, 독일의 종교개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제국의 행정적 혼란이 루터의 개혁운동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준 것이다.

## 2. 경제적 배경

16세기 초엽의 독일의 경제 사정은 중세 봉건 체제 하에 장원경제가 몰락하고 신흥 상업 자본주의가 새로 대두되었다. 또 도시의 발생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sup>13)</sup>

1521년 독일내에는 약85개의 도시들이 있었고, 이들 중 65개가 제국 직할로 속해있었고 명목상으로는 시의회와 시장들에 의하여 통치되었고, 이들의 배후에는 부유한 대상인들이 있었고, 소규모의 길드(상인들의 동업조합)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라인강 연안의 남부 독일의 도시<sup>14)</sup>들은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

13.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6), p.52.

14. 아우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콘스탄스, 프라이부르크, 스트가스부르크, 마인즈, 콜로

다.15)

영주들과 도시들이 이와 같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에, 기사계급들은 군사적 효용성을 상실한 채 봉건제도의 잔재로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운이 좋은 일부 귀족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갔으나, 대다수는 상인들이나 촌락, 수도원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약탈을 일삼았다. 또 유럽인구는 6천5백만 내지 8천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약60명 이상의 왕들과 귀족들, 그리고 대주교 등 교회지도자들이 지배계급으로 권력과 부의 독점으로 농민과 노동자들은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었고, 또 유럽 토지의 3분의 1은 교회의 소유이거나 교회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산물 중에서 70-80%를 지대와 세금, 헌금 등으로 영주나 교회에 바쳐야 했으므로 농민들의 생활상은 비참할 지경이었다.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은 1524년 폭발된 농민전쟁 때 루터의 동정을 구하기 위해 루터에게 제출한 12개 신조(1525)에 잘 반영되어 있다.16)

그리고 독일의 중앙부와 북부 지방은 경제적 구조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아직도 농본주의적이며 봉건적이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농부들이 누리던 개인적 자유는 제한되어 있었으나, 큰 자립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갖가지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즉, 연간 바치는 조세, 10분의 1세, 사망세, 사냥이나 낚시질에 대한 제한, 개인적 행동의 속박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수단이 점차 물건에서 화폐로 전용됨에 따라 농부들은 농노에서 소작인의 신분으로 격상되었다.17)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았으며, 특히 교회재산에 대하여 그러하였다. 교회는 국왕들로부터 해마다 공납금을 거두고 있었다. 사제들도 취임할 때는 교회에 취임료를 바쳐야 했다. 교회당의 건립, 전쟁, 그 밖의 무수한 일을 구실삼아 교회는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자체에서 빈곤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나 만족스런 해결을 할 수 없었다.18)

뉴, 에르푸르트 등은 상업활동으로 번잡하였다.

15. 루이스 W. 스피츠,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42.

16. 이상규, 교회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7, p.37.

17. 루이스 W. 스피츠,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op. cit., p.43.

18. 배본철, 기독교회사, op. cit., 1995, p.344.

각 사회계급들의 불만들은 교회를 향해 있었고, 현대적 병기 및 용병들을 구입  
 • 고용하고, 재판소와 제련소를 운영 • 유지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  
 다. 그래서 영주들은 교회의 재산과 수입에 눈독을 들였고, 주교들의 손에서 권  
 력을 빼앗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영주들과 시의회들은, 성직자의 면책특권에 불  
 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사들도 영주와 주교들의 착취에 대해 증오를 가지  
 게 되었다.<sup>19)</sup>

그래서 루터가 그의 논문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독일내에  
 서 개혁되어야 할 폐단 27가지를 나열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로마 교회의 수탈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제일 폐해가 컸던 첫수입  
 세, 팔리움, 보류권, 사라센세 등은 각종 제도와 면죄부에 관한 것들이었다.<sup>20)</sup>

그러므로 루터가 독일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독일은 더 이상 로마의 경제적  
 착취에 대상국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을 때 높은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sup>21)</sup>

### 3. 사회적 배경

14세기 후반과 15세기의 역사에 있어서 독일 도시들은 스스로를 소국가로 여  
 기고 있었고, 시의회는 정부로서 기능을 하고, 거주자들은 시민으로서 살고 있었  
 다. 그래서 독일 도시들이 발달하였고, 중요성이 확대되었다.<sup>22)</sup>

그리고 농촌에는 흑사병의 발생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야기되었다. 영주  
 들은 몇 세기를 지나는 동안 크게 진전되어 온 예농해방 과정을 중지시키고, 차  
 지인들에게 옛날의 무거운 노동부역을 다시 부과하려 하였다. 자유 임금노동자  
 는 노동력 부족을 틈타 임금상승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에 탄압적으로 대응하  
 여 임금을 옛 수준으로 동결시키려 하였다. 그러한 조치는 격렬한 반발을 일으  
 켰다. 흑사병은, 대다수 농민들로 하여금 힘겹고 단조로운 삶을 본질적으로 변  
 화될 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하던 옛 관습의 속박을 깨부수었다. 전통

19. 루이스 W. 스피츠,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op, cit., p44.

20. 차종순, 교회사, (서울: 장로회출판사, 1993), p.241.

21. Ibid, p.244.

22. A. E. 맥그래스, 박종숙 역, 종교개혁사상입문, (서울: 성광문화사, 1998), p.33.

적인 촌락 중심의 영농 방식은, 많은 집안의 갑작스러운 사멸과 상속의 단절 그리고 전례 없는 토지과잉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sup>23)</sup>

15세기부터 16세기초 밀의 가격이 현저히 폭락했으며, 이 때문에 농부들이 도시로 몰려 들었고, 결과적으로 농촌 인구의 격감을 초래했다. 상업 길드나 시의 회에의 진출이 거부되자, 이 새로운 도시 빈민들의 불만은 확대되었고, 큰 지지 기반과 대표성이 있는 정부를 구성하자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16세기 초반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증대하고 있었다.<sup>24)</sup> 또 농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속에 살았으며, 요한 뵘은 농민들의 운명은 힘들고 가련했으며 그들은 마치 노예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독일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세바스티안 프랑크, 세바스티안 뮌스터, 판타레오네 등은 다같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요한 뵘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sup>25)</sup>

또 이시기는 수년동안 농산물의 수확이 급격히 감소된 시기였다. 이러한 수확 감소는 14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에 살았던 작가 트리테미우스는 가난한 자들의 운명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말하였다. 1500년은 독일 전역이 흉년을 들었고, 1501년과 1502년은 여러지역에서만 흉년이 있었는데, 1503년은 또다시 전체적으로 흉년을 맞이하여 이 3년 동안의 기근은 농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하였다. 브란덴부르크의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풀을 뜯어서 입에다 문 채 숲속에서 굶어 죽은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아우크스부르크나 슈트라스부르크 같은 도시는 곡물을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때때로 분배함으로써 빈민들이 생명을 유지하였다. 1490년부터 1503년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기근은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회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sup>26)</sup>

유럽의 농민들은 계속해서 소요를 끊이지 않고 일으켰다. 특히 이들은 성직자들의 착취를 언제나 구호 속에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었다. 십일조는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 강제적인 세금이었다. 대십일조와 소십일조는 생활의 모든 것의

23. 브라이언 타이어나니/시드니 페인터 공저, 이연규역, 서양중세사, (서울: 집문당, 1997). p.538.

24. A. E. 맥그래스, 박종숙 역, 종교개혁사상입문, op, cit., p.34.

25. 토마스 M. 린제이, 이형기·차종순 역, 종교개혁사(1), op. cit., p.121.

26. Ibid, pp.124-125.

1/10을 의미하였다. 옥수수, 목초지, 목장, 풀밭, 나무, 땅아지, 양, 거위, 풀, 밀, 납, 치즈, 버터, 심지어는 계란의 1/10을 의미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면 부활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하여 이단으로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도 다닐 수 없어 자연스럽게 십일조 헌금을 반대하는 후쓰파의 전도집회가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스 뵘이라는 사회의 가장 낮은 층에 속했던 불학무식한 젊은이의 환상과 설교는 순례자들의 입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sup>27)</sup>

## 1) 한스 뵘의 사회주의 운동

한스 뵘은 시골 축제나 교회의 기념축제를 따라서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작은 북을 치기도 하고 또는 낭적(초보적인 백파이프)을 불기도 하고, 또는 춤추는 자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떠돌이 프란시스스코파 수도승과의 대담을 통해서 영적인 면에 대한 깨달음을 불현 듯이 갖게 되었고, 그는 성모 마리아의 환상을 보았는데 마리아는 그에게 흰 옷을 걸친 귀부인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그에게 설교자가 되라고 부르면서 때에 따라서 그에게 계시를 더욱 많이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그의 집은 타우버 골짜기의 헬름슈타트 마을이었으며, 그가 아는 가장 성스러운 지점은 타우버의 조그마한 니클라스하우젠 마을에 세워진 성모봉헌 예배당이였다. 이 교회에 면죄부가 하사되었고 조그마한 순례자의 행적이 줄을 서는 모습을 가끔씩 보곤 했다. 한스 뵘은 사순절 중반의 어느 주일날(1476년 3월 24일)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조잡한 북과 백파이프를 엄숙하게 불에 태우면서 나는 지금까지 죄와 마을의 허왕된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 왔으나, 지금 이후로는 은총의 설교자가 되겠노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나무랄 데 없는 무결점의 사나이로 살았으며, 그의 고매한 인격이 그의 말씀에 힘을 더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환상을 현실과 연결시켰으며, 백성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순례자들은 서로 나타난 예언자의 소식을 널리 퍼뜨렸다. 이웃 마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그의 명성은 먼 곳에까지 퍼졌으며 연대

27. 차종순, 교회사, op. cit., pp.274-275.

기 저자는 어느 날 그가 20,000-3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다고 적었다. 또한 그는 모든 사제들을 헤아릴 수 없는 말로 욕하였다. 사제들은 유대인보다 더 나쁘며, 잠시 동안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sup>28)</sup> 그는 황제에 대해서도 이를 갈았다. 황제는 사악한 악당으로서 제후들과 군주들, 세금 징수자들과 여타의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자들의 모든 악독을 치원하는 자이다. 그는 교황을 조롱하였다. 그는 연옥을 부인하면서 선한 자는 직접적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악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였다. 모든 제후들, 심지어는 황제까지 모든 가난한 자들과 같이 하루의 품삯을 위해서 일해야만 할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모든 세금은 다같이 악한 것이므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물고기, 사냥감, 목초지 등은 공동의 재산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같이 형제이므로 이상의 공동의 재산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1476년 한스 뷔의 설교 때 뷔르쯔부르크의 주교는 34명의 기병을 보내서 한스 뷔를 생포하여 프라우엔부르크라는 주교의 성에 감금하였다. 뷔르쯔부르크의 주교의 손에 의해서 화형당함으로써 끝이 났지만 한스 뷔의 가르침은 모든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반항에 영향을 끼쳐 새로운 동요의 불씨를 심어 주었고, 1493년 엘사스 지방의 사회적 봉기를 필두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분트슈 동맹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루터의 시기까지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켰다.<sup>29)</sup>

## 2) 분트슈 운동

도시의 지지를 받은 농민들을 분트슈 운동을 일으켰는데, 독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신을 끈으로 묶어야 한다.’는 속담에 따라서 ‘끈으로 맨 구두’, 즉 가난한 사람들의 신이 이 운동과 그때 이후로 이어지는 사회적 봉기의 휘장이 되었으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의로운 것만’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 반항 운동은 익기도 전에 무산되었으나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슐레트슈타트의 시장이었던 한스 울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내세운 요구조건이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교수대에서 처형당하였으나, 그는 이 운동

28. 토마스 M. 린제이, 이형기·차중순 역, 종교개혁사(1), op. cit., pp.114-115.

29. 차중순, 교회사, op. cit., p.275.



이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1501년 캠프톤과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또다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협력하였다. 그 이듬해인 1502년 농민들의 봉기는 약 7천명이 가담되었으며, 스파이어 가까이에 있는 운터그롬바흐를 사령부로 삼자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 봉기에 넥가와 저 아래 라인에 이르기까지 엘사스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제후, 귀족, 성직자에게 지대, 십일조, 조세, 통행세 등을 일체 내지 않을 것, 농노제를 폐지할 것, 수도원과 기타의 교회재산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할 것, 황제이외의 어떠한 권력도 인정치 않을 것 등이며, 모든 독일의 농민과 도시민들이 봉기해서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었다.<sup>30)</sup>

요스 프릿쯔는 군인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많은 자질을 갖춘 인물이며, 그는 목표에 대한 집착력, 위대한 조직력, 그리고 설득력이 남달리 뛰어났다. 그는 분트슈운동을 재건하겠노라고 서원하였다. 그는 수년 동안 스위스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추진시켰다. 레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는 이미 찢어진 분트슈운동의 실들을 다시금 엮어 짜기 시작하였다. 그는 주점과 교회의 축제일, 일반 축제일에 잔디밭에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을 규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사악함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는 옛날의 분트슈 원리를 새롭게 약간 변형시켜서 해석하였다. 대부분의 마을 사제들도 농민 출신으로서 농민들처럼 상급자들의 과중한 부담에 피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레헨의 교구사제는 분트슈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으며, 그의 교구민들에게 분트슈의 모든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프릿쯔도 거지들과 떠돌이 약사들의 '길드', 그리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유랑민들을 자기편으로 규합하였다. 이들은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숲속의 조용한 회의장으로 사람들을 소집하는 등 그의 능동적인 조력자가 되었다. 또 프릿쯔의 보좌관이 된 떠돌이 제과공 제롬은 '단순하게 성령에 따라서만' 성서를 해석했으며, 분트슈의 모든 요구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증명하였다.<sup>31)</sup>

이리하여 운동을 위한 준비가 무르익자 프릿쯔는 비밀리에 분트슈 운동의 상

30. 토마스 M. 린제이, 이형기·차중순 역, 종교개혁사(1), op. cit., pp.118-119.

31. Ibid, p.119.

징인 깃발을 만들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 깃발은 푸른색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흰 십자가를 중앙에, 그리고 한쪽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농민을, 다른 한쪽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형상을 그렸으며, 그의 표어인 “오 주여, 의로운 자를 도우소서”라는 말을 새겨 넣었다. 결국 분트슈 운동은 옛 프로그램을 그대로 고수하고 전진하여, 마침내 쾰른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바덴과 엘사스 지역을 포함한 보스게스와 흑삼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sup>32)</sup> 이 비밀운동조직은 1513년 발각되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 운동 정신은 당시 프리쯔를 추종하던 거지, 가난한 사제들, 결식 수도자들, 하물며 문둥병자들 까지도 참여한 길드와 도시에 사는 가난한 장인들에게까지 침식되어 운동이 더욱 더 새롭게 결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민들과 도시인들이 연합 결속한 이 운동은 모두는 공산주의 이념과, 분트슈 깃발이 표상이 된 종교적 열광주의의 혼합에서 비롯되어 이들 잔재에 의해 독일에는 1514년 뷔르텐베르크에서 “가난한 콘라드”라는 이름의 조직이 발생하게 되었다.<sup>33)</sup>

또 종교적 열광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운동은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쪽 기원으로는 한스 뷔의 운동이며, 이보다 이전의 후쓰파나 타보르파의 혁명운동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sup>34)</sup> 그리고 이 분트슈 운동은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한창 진행중이었을 때에도 활동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역사적 사실은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논제의 과문으로 말미암아 1518년 이후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로마로 호출하여 심문하였을 때,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정치적 수단으로 로마 소환을 취소하고, 독일 땅인 아우그스부르크에서 심문케 하여, 모든 독일인이 심문없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새로 즉위한 카알 5세와의 타협하에 루터사건을 제국의회에서 심문토록 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루터에 대한 심문이 한창 보름스 의회에서 진행될 때, 의회에서 루터의 신분 보장이 철회된다는 소문이 밖으로 흘러나와 루터를 보호하겠다는 400여명의 기사들의 이름이 보름스 시청 벽에 기재되었고, 8,000여명의 용병이 루터를 수호할 준비가 되었다는 프렌카드와 분트슈 깃발이 시내 곳곳에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32. Ibid, p.120.

33. 지인성, “중세사회운동과 종교개혁”, (기독교사상, 1983년 11월), p.34.

34. 토마스 M. 린제이, 이형기 • 차중순 역, 종교개혁사(1), op, cit., p.121.

루터의 신변은 보장되었고, 그해 4월 26일 황제는 루터에게 보름스를 떠날 것을 명하여 루터는 죽음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분트슈 운동이 루터의 개혁운동 성공에 커다란 지지세력이 되었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잘 이해할 수 있다.<sup>35)</sup>

### 3) 급진파 운동 및 기사의 난

1521년 4월 26일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가 루터에게 보름스를 떠나도록 명한 후에도, 교황 사절 알렉산더를 비롯한 교황파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프리드리히를 비롯한 루터 지지자들이 귀국하여, 의원이 줄어든 의회에서 루터를 제국의 파문에 처하는 칙령을 기초하여, 황제의 서명을 얻고, 이것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교황이 황제의 편을 들어 밀란과 제노아에서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는데 협조키로하고, 황제는 그 대가로 루터와 그지지 세력을 제거키로 한다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루터의 체포와 그를 보호해 주는 자는 재산을 몰수한다는 칙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바르트부르크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루터가 이곳에 은둔해 있는 동안 비텐부르크에서는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성취하려는 급진파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중 카슈타트는 반카톨릭주의자로서 교회의 성상 파괴운동을 개시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쓰비카우 예언자”<sup>36)</sup>들과 제휴하여 사회 혁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늘의 환상과 세상의 종말이 왔음을 주장하며 미래사를 예언하고, 유아 세례를 부인하며 하나님에 의한 직접 영감을 강조하였다. 추종자들은 대부분 농민과 노동자들로서, 그들은 칼슈타트와 함께 길드 내부에서 그들 세력을 신장하고, 교회 제도와 사회 조직의 과격한 개혁을 도모하였다.<sup>37)</sup>

1522년 8월 27일, 프란츠는 반 봉건적 존재이던 트리에르의 대주교를 향해 선전을 포고함으로써 역사상 “기사 반란”이라고 잘못 기록된 전쟁을 시작하였다.

35. 지인성, “중세사회운동과 종교개혁”, op, cit., p.38.

36. 예언자들은 토마스 뮌짜, 양복제조공 니콜라스 스토르치, 당시 학생인 마크 슈튀브너 등이었다.

(루이스 W. 스피츠,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op, cit., p.74.)

37. 지인성, “중세사회운동과 종교개혁”, op, cit., p.40.

이때 프란쯔는 인민들을 사제들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복음적 자유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9월 7일 트리에르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나, 8일간의 포위 끝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3인의 영주들이 1523년 4월 23일 힘을 합하여 란트스툴이라는 요새지에서 식킹겐을 포위하였다. 프란쯔는 화살에 의해 치명상을 받은 위에, 포화에 의해 성벽이 무너지면서 기둥에 깔려 숨지고 말았다. 그후 스와비안 운동에 속한 영주들과 남부 독일의 도시들은 게오르그 트루크세츠 폰 발트부르크의 지휘 아래 군대를 모아 스와비안 및 프랑코니안 지방출신 기사들의 본거지들을 공격하였다. 6주 안에 32개의 성이 함락되었다.<sup>38)</sup> 그리고 프란쯔에 협력한 후텐은 스위스 쥐리히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기사 전쟁이 끝나자마자 농노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독일의 반 이상이 때를 지어 약탈을 일삼는 농노들에 의해 유린당하였는데, 어떤 지방에서는 이들의 수가 1만 2천명에 달하였다. 남부의 경우 난리는 오스트리아에까지 이르렀다. 투링기아 지방의 농노들은 에르푸르트를 약탈하고 파괴하였다. 독일 중부 지방에서만 40개 이상의 성들과 수도원들이 파괴되었다. 뮐하우젠에 본거지를 둔 관신자 토마스 뮌처의 수하에 있던 농노들이 가장 난폭하였으며, 최후 역시 가장 비참하였다. 뮌처는 사회적 혁명가라기보다는 천년왕국을 꿈꾸는 종교적 극단주의자였다.<sup>39)</sup>

우리는 이같은 당시의 기사계급과 농민계급의 끊임없는 저항과 반란 속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개혁운동과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개혁운동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다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토마스 뮌처의 개혁운동이었고, 이 운동이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다.

38. 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 op. cit., p.76.

39. Ibid. pp.78-79.

### Ⅲ. 루터와 종교개혁의 배경

16세기는 이전의 시대와는 구별되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등이 유럽에 태동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지식을 매개로 한 것으로써 이 변화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인물은 콜롬부스, 바스코 다 가마,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였다.

콜롬부스는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구라파 중심의 세계질서에 충격을 주었고,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인도양으로 와서 1498년 인도와 중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지리상의 발견은 세계관의 변화를 주기에 충분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천동설 중심의 우주관에 매여 있던 중세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고, 그것은 상업과 무역, 도시화와 새로운 사회 계급의 대두, 그리고 사상적 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혁을 가져왔다.<sup>40)</sup>

그리고 과학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망원경과 현미경, 나침반, 시계, 화약, 인쇄술 등이 발명되기 시작하였다. 1454년 구텐베르크는 인쇄술을 발명하여 종교개혁의 서적들을 유럽에 널리 확산시켰다. 1500년경에는 유럽 도처에 1,000여개의 인쇄소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나라에 대학들이 많이 세워졌다. 독일의 경우는 1450-1517년 사이에 잉골슈타트, 튀빙겐, 비텐베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지에 9개 정도의 대학들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역사적 현상들이 종교개혁에 공헌한 배경이 되었고,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중세 스콜라주의 및 인문주의, 중세 후기 신비주의, 민족국가의 출현 등 이러한 역사적·사상적 맥락은 루터의 신학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sup>41)</sup>

#### 1. 로마카톨릭의 전통

1510년에 어거스틴과 수도회의 일로 로마에 가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기뻐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교황은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리자이고 '영원한 도성'인 로마는 지

40. 이상규, 교회개혁사, op, cit., pp.24-25.

4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5), p.11.

교의 거룩한 보좌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서방교회의 수도원주의를 따르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훈련받았고,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제의 서품을 받았다.<sup>42)</sup> 문학사와 석사 학위를 마치고, 1509년에는 서방교회의 표준 교의학에 속하는 피터 롬바르드의 교의학을 강의하였고, 1512년에는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어거스틴 신학을 강의하였다. 그는 로마 카톨릭 신부로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를 강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서방교회의 신학적인 전승을 이해하지 않고는 루터의 신학사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즉, 어거스틴의 신학, 중세기의 안셀름과 아퀴나스의 신학은 물론, 루터의 선생이었던 후기 중세기의 비엘과 후자의 선생이었던 오캄의 철학과 신학 및 서방교회의 후기 중세기적 신비주의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43)</sup>

## 2. 중세 스콜라주의 및 인문주의

### 1)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는 1250-1500년 사이에 융성했으며, 종교적 신념의 이성적 정당화에 큰 강조점을 두었던 중세의 운동이었고,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고 확장할 필요성과 그 내적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확장시킬 방법론이 필요하였는데 12세기 후반과 13세기 초반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을 통해 주어지게 되었다.<sup>44)</sup>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스 스코투스와 같은 저술가들의 영향을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념들은 기독교 신학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 신학의 이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제들 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상관되었고,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념들의 근거 위에서 증명되었다. 이렇게 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신 존재 “증명들”중의 어떤것들은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의 신학이라기 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의 원칙들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42. 시드니 휴튼, 정중은 역, 기독교 교회사, (서울: 나침반, 1997), p.20.

43.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p.3-4.

44. A. E. 맥그래스, 박종숙 역, 종교개혁사상입문, op. cit., p.88.

45. Ibid. p.89.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재론을 주장하였는데, 실재론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인 보편적 신개념과 성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 신학적 실재론에 봉사한다. 자연과 계시는 서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둔스 • 스코투스에 이어 오캄은 유명론을 내세워 실재론에 반대하였다. 오캄은 추상적 보편의 실재 혹은 이런 의미에서의 객관적 지식을 거부하였다. 오캄은 “인간”이라고 할 때에 보편적인 인간일반의 추상개념과 “국가나 교회”라고 하는 보편개념 내지는 보편적 실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캄의 유명론에 있어서 영혼의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보편개념은 믿을 수 없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우 3개별의 1체성 역시 용납될 수 없고, 교회의 보편적 실재와 하늘나라의 보편적 실재 역시 확실성이 없다. 따라서 유명론은 인간 이성의 능력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특수 계시인 성경의 권위를 높였고, 신앙을 강조하였으며 실재론적 주지주의에 반대하여 양심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실천이성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 운동은 1350년에서 1500년어간 사이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운동과 때를 같이 하여 일어났고, 루터가 수학하던 독일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루터의 선생으로 있었던 비일이 이 유명론신학의 대가였다.<sup>46)</sup>

루터의 신학적 발전이 스콜라 신학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스콜라 주의가 스위스에서는 지적 동력으로서 무시할 만한 것이었는데 비하여, 독일에서는 특히 루터가 공부했던 에어푸르트 대학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학적 개혁자로서 루터의 초기 사역은 자신의 학적 반대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면서, 대학이라는 배경 속에서 수행되었다. 그래서 인문주의 사상들이 루터의 신학사상을 이해하는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sup>47)</sup>

## 2) 인문주의

1350년에서 1500년 어간에 후기 중세주의 운동에 병행하여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운동이 일어났다. 부르크하르트, 그리스텔러, 마론, 벌크, 및 흠

46.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5.

47. A. E. 맥그래스, 박종숙 역, 종교개혁사상입문, op. cit., p.91.

스 등 르네상스 연구가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문화적·교육적 부흥운동으로서 회랍·로마 문화의 부활이었으며, 지성의 운동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또 인문주의 운동은 인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근본이 되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sup>48)</sup>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객관적, 스콜라적, 체계적 사상 대신에 주관주의, 개인주의, 인간 각자의 경험에 치중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으며 역사적이며 철학적인 연구방법인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어 신약성서와 교부들의 저서를 중시하여 철학적이며 비판적 방법의 원리로 성서연구를 하였다.<sup>49)</sup>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회랍어성경의 영향을 받아 르네상스의 모토인 “근원으로 돌아가자”와 더불어 성서와 어거스틴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대가인 에라스무스의 「자유 의지론」의 공격에 대하여 루터는 「노예 의지론」을 주장하였다.<sup>50)</sup>

에라스무스는 의지의 자유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자유의지론: 논쟁서 혹은 논술」이라는 논문에서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인간의지의 힘으로써 그것에 의하여 한 인간이 자신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들에 자신을 적용할 수 있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노예 의지론」에서 사람들이 단지 이 세상 일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자유한 것이지 그들을 초월한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문제들의 관계에서는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했다.<sup>51)</sup>

인문주의자와 개혁자는 다같이 성서와 교부들에 근거한 저술들을 통하여 스콜라 신학을 배척하였고, 또한 인문주의는 종교 개혁의 발전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 3. 중세 후기 신비주의

중세 말엽 로마 카톨릭교회가 계급적인 성직체제와 7가지 성례전<sup>52)</sup>을 은총의

4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6.

49. 박경민, 크리스트 교사, op. cit., p.217.

50.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7.

51. 베른하르트 로제, 루터 연구 입문,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p.99-101.



수단으로 하였으나, 신도들의 심령속에 생명력있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되자, 유럽 도처에서 신비주의 운동이 발생되었다.<sup>53)</sup> 그리고 이 신비주의 운동은 제도적 교회와 7가지 은혜의 수단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시도했는데, 1302년경 파리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에크하르트<sup>54)</sup>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보자로 하는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적인 가능성에 의하여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말하는<sup>54)</sup> 범신론적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신앙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교회의 성사를 비판하였고, 인간은 신의 존재속으로 흡수되어 인간성을 상실하고 신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에크하르트의 이론은 그의 제자인 요한 타올러에게 계승·발전되었으며, 타올러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로이 주는 은총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성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축소시켰다. 즉 인간이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신의 자유은총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이제 그에게는 교회와 그 권위가 불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을 말하였다.<sup>55)</sup> 특히 1498년에 쓰여진 타올러의 설교는 루터의 초기 신학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오츠만 교수는 루터의 시편 강의에서 그 연속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같은 독일 신비주의에 속하는 「독일신학」<sup>56)</sup>은 저자 불명으로 루터에 의하여 1516년경에 출판되었는데, 루터는 이 책이 성서와 어거스틴을 제외하고는 아주 훌륭한 작품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역시 이 「독일신학」은 루터의 「로마서 강의」 같은 작품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에크하르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존 루이스브랙은 플란더즈에서 저작활동을 하

52. 7가지 성례전은 영세, 견신례, 성찬, 결혼례, 고해성사, 서품, 종유성자이다.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고 있다.

53.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8.

54. 에크하르트의 범신론을 말하는 말들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던 눈이 하나님이 나를 보았던 눈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그는 위대하신 자 안에 있는 사람이며, 모든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로 일치된다”, “외부로 다양하게 노출된 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사람이 가진 눈, 코, 입, 손, 발, 심장 등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작은 손으로 나는 세상을 만들었다” 등이다.

(Clyde L. 맨슈랙, 심창섭·최은수 역, 세계교회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6), p.266.)

55. 박경민, 크리스트 교사, op. cit., p.222.

56. 이 책은 여러명의 저자들이 함께 집필한 것으로 보여지며,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1516-1518년 사이에 그 책을 재발행하였다.

(Clyde L. 맨슈랙, 심창섭·최은수 역, 세계교회사, op. cit., p.267.)

면서, 그는 신비적 명상을 대중화 하였고, 게르하르트 흐루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흐루트는 네델란드를 여행하면서 교회권의 남용과 신실한 종교적 삶 등을 설교하였다. 그의 제자인 라데윈과 함께 그는 단순한 생활을 강조하고, 새로운 헌신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공동체인 공동 생활형제단을 창설하였다.<sup>57)</sup> 루터도 어렸을 때 공동 생활형제단이 세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교회쇄신의 주창자들인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인문주의자들과 루터, 멜란히톤, 칼뱅, 츠빙글리 등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도 이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받고 배출되었다.<sup>58)</sup>

초기 루터신학에서 화란 신비주의의 요소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신비주의 사상을 통해 '만인 사제론'이 독일에서 루터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sup>59)</sup>

#### 4. 교황권의 쇠퇴와 민족국가의 출현

교황 인노센트 3세는 교황권과 교황주의 교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고,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이 황금기에 돌입한 것은 바로 이 교황 절대주의 혹은 교회 절대주의 시대의 일이었다. 이 시대에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와같은 교황 지상주의는 보니파카우스 8세가 1299년에 선포한 '하나의 거룩한 교회들' 「Unam Sanctam」으로 끝을 맺었다.<sup>60)</sup>

그러나 후기 중세기로 접어들면서 당시 교회의 부패상과 정치적 야욕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극에 달해 있었고, 교황중심적 교회 획일주의에 대한 반대들이 일어났다. 단테는 그의 『왕정론』<sup>61)</sup>에서 왕정국가의 독립적 존재이유를 주장하였다. 오컴 또한 국가의 독립성과 그 필요성을 비판하였고, 파리대학의 총장이던 마르실리우스<sup>62)</sup>의 『평화의 수호자』는 당시 교황중심의 로마 카톨릭교회를 인정

57.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268.

58. 박경민, 크리스트 교사, op. cit., p.223.

59. Ibid., p.222.

60.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9.

61. 단테는 「군주론」에서 “교황이 우리의 영적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과 같이, 황제는 우리의 현세적 안녕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권과 정권은 다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본철, 기독교회사, (서울: 문서선교 성지원, 1995) p.253.)

하면서도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치국가의 존재이유를 갈파하였다. 마르실리우스의 본서는 A. D. 1326년경 로마교황에 의하여 정죄된 책으로서 위클리프, 후쓰,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터에게 두 왕국사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같이 후기 중세기의 민족국가주의적 왕정국가론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물결과 더불어 종교개혁 당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왕정국가들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로마의 교황청 중심의 한 나라는 분열되고 그대신 교회와 국가라는 두나라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중세적 교회 획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모든 세속적 가치의 세계가 중세 교회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서구문명의 세속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유럽의 이와같은 상황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토양으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개혁이 일단락되는 단계에 가서는 민족국가 단위로 신앙고백들이 형성되었는바, 이것 역시 당시 민족국가들의 등장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사회적인 변화는 봉건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싹을 트기 시작하였고, 경제 체제에 있어서도 봉건주의적 농본주의가 상업주의적 자본주의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황권이 쇠퇴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이 차츰 자주독립을 요구하며 교황청의 간섭을 배척하였다. 또 신흥중상계층들의 지식과 재산이 급증하고 정치적인 세력이 결집되어 급속하게 봉건제도를 붕괴시켰다. 둘째, 많은 학자들이 고대 로마법을 연구하여 국법을 제정함에 있어 종래의 교회법들을 배척하였다.<sup>63)</sup>

---

62. 마르실리우스는 1342년에 “최고 권리는 민중에게 있다. 국가로 보면 국민에게, 그리고 교회로 보면 교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니, 그들은 교황이나 황제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정권과 교권은 각각 국민의 복리를 위해 힘을 다하고, 결코 다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본철, 기독교회사, (서울: 문서선교 성지원, 1995), p.253)

63. Ibid.

## IV. 루터의 종교개혁사상과 농민전쟁

루터는 구원의 문제로 고통과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시편 연구와 로마서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사상을 기초원리로 하여 카톨릭교회의 사상과 제도, 그리고 가르침을 향하여 반대하는 개혁사상을 전개하였다.

루터는 시편 연구를 통하여 구원은 인간 편의 어떤 공로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하나님과의 새롭고 즐거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로마서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부터 그에게는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복음의 요지가 죄의 용서였다. 이것이야말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신뢰로서 영혼을 충만케 하는 “복음”이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다.<sup>64)</sup>

그래서 루터의 개혁사상이 무엇인가를 고찰함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과 그의 4대 개혁논문을 통하여 루터의 개혁사상을 고찰하며, 또 로마 카톨릭의 부패의 원인과 그 당시의 농민들에게 무관심과 억압자의 모습을 보여준 카톨릭 교회의 태도는 농민전쟁을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 태동되었고, 루터가 불혹의 나이를 넘긴 1524년에 루터의 과격한 혁명적인 저서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이 관청과 교회에 공격을 감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농민전쟁의 시작이었다.<sup>65)</sup>

### 1. 루터의 종교개혁사상

16세기와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문제가 핵심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세 암흑기 동안에 가리워졌던 복음의 진리가 루터 안에서 재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론과 은총론은 구원론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루터보

64. 윌리스턴 워커, 강근환 외3인 공저,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pp.334-335.

65. 박경민, 크리스토포사, op. cit., p.237.

다 이전부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 이루어졌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토론되어 왔기 때문이다.

루터가 새롭게 다시 발견한 구원의 문제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권위체계에 대하여 특히 전통이라는 권위에 대항하여 “오직 성경으로”라는 새로운 권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거부를 시도했다는 점이 종교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사상에 중요한 루터의 성서관과 교회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sup>66)</sup>

## 1) 루터의 생애

루터는 1483년 11월 30일 삭소니 지방의 아이스레벤에서 한스와 마가렛 루터의 장자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광부였지만, 그는 멜랑히톤과의 대화에서 자기를 농민의 아들로 표현하였다. 루터는 출생한 다음 날 그 당시의 관례에 따라 성 베드로 교회의 종각방 하층으로 안겨 가서 렌네베헬 목사로부터 세례<sup>67)</sup>를 받았다. 그 날이 바로 성 말틴의 출일이었기 때문에 루터의 아버지인 한스 루터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말틴이라고 이름지었다.<sup>68)</sup>

1484년 초여름에 루터의 가정은 아이스레벤을 떠나 할즈산 가까이에 있는 만스펠트로 이사하였다. 이 지방은 아이스레벤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도시이고, 아이스레벤에서 서북방으로 약 20마일밖에 위치한 곳이었다. 이 도시에서 루터의 부모는 어려운 생활 여건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루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아래에서 십계명, 주기도문, 신조, 간단한 찬송 등을 배웠다.<sup>69)</sup>

루터의 가정은 성실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정이며, 마스펠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가정이었다. 그의 부모는 루터가 근면한 성품과 출중한 판단력과 담력

66. 임도건, 종교 개혁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33.

67. 그 때에 사용된 세례기는 1518년에 다른 것과 대치되었으나 1827년에 다시 찾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성 베드로 및 바울 교회의 세례실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지원용, 말틴 루터 생애와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91), p.33. 재인용.

68. 지원용, 말틴 루터 생애와 사상, op. cit., p.33

69. 지원용, 루터사상의 지수, (서울: 컨콜디아사, 1992), p.159.

을 지닌 장남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아 법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루터는 1488년 5월 12일 성 게을그 축일에 만스펠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삼과목, 즉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배웠다. 이때 그는 라틴어와 독일어를 함께 배웠다.

14세가 되기까지 8년 동안 만스펠트의 초등학교에서 교육받은 루터는 1497년에 마그테부르크시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의 학창 시절이었으나 그곳에서 경건하기로 이름난 '공동생활의 형제당'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명과 경건 교육을 받았다.

1498년에 루터의 가정은 아이제나호로 이사하였다. 이곳의 고등학교에서 루터는 라틴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었고, 웅변술과 언어의 시적 표현을 배우게 되었다.

1501년 5월, 루터는 엘폴트 대학교 문리과에 입학하였다. 우수한 학생이면 18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었는데 1502년 말에 문학사 학위를 받고, 1507년 1월 7일에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505년 5월에 엘폴트 대학교 법과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였으나 법학에 관심을 잃고 수도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라 할 수 있다.

루터의 모든 교육 즉 가정, 학교, 대학에서의 교육은 루터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더욱 더 깊게 하였다. 이것은 그의 천품과 환경이 병행한 데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그는 1505년 여름날 한 젊은 학우는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을 면전에서 목격하였고, 또 루터도 뜻밖에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그 때 그의 나이 21세였으며 에르푸르트 대학생이었다. 부모님을 찾아 뵙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벼락을 맞아 땅에 나뒹굴었다.<sup>70)</sup> 그는 자신의 죄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어떻게 ‘의’의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번민하였다. 자신의 무능과 하나님의 절대복종이라는 면에서 더욱 깊은 사색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1505년 7월 17일에 엘폴트에 있는 어거스틴과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

70. 롤란드 베인톤, 이종태 역, 마틴루터의 생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p.34.

다. 그는 수도원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으며 성자들이 걸어갈 길을 자기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507년 4월 3일에 사제로 임명받았다. 그 해 5월 2일에 그의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초의 미사를 집전하였다. 그는 1507년부터 1512년까지 계속하여 공부해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내 영혼에 인자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였고, “나는 티끌 같으며 죄에 가득한 자”라고 고백하였다.

루터는 1513년부터 1517년까지의 5년간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시편 강해와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을 계속 강해함으로 종교개혁의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루터는 한 때 수녀 출신이었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1525년 6월 13일에 결혼하였다.<sup>71)</sup>

## 2) 루터의 개혁사상

### (1) 루터의 성서관

루터의 성서관의 올바른 이해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서관을 지적한데서 출발하고 있다. 루터에게 문제가 된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성서의 권위가 언제나 교회의 권위에 종속적인 권위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 안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복종해야하며, 베드로에게 주어진 교회의 구원의 열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자에 불과한 교황의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고 유한한 인간의 본성을 절대화 시키는데서 인간이 가져야 할 진정한 한계성을 파괴시킨 카톨릭 교회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성서의 상대적 권위에서 절대적 권위로 회복시키려는 말씀의 존중이 바로 루터의 개혁 정신의 핵심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72)</sup>

71. 베른하르트 로제, 이형기 역, 루터 연구 입문, op. cit., p.58.

또 루터는 성경에 대한 모든 이해를 롬 1:17의 재발견으로 시작되었고,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이 한데 묶여져서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루터의 성경관은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적 권위, 전통에 반하여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적 루터의 성경관은 성경 자체로부터, 곧 원전 자체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는 그 자체뿐 아니라, 성경 해석의 원리까지를 자체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교리로서의 성서가 아니라 생기있는 신앙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환원운동의 힘을 가진 실천으로서의 성서가 된다.<sup>73)</sup>

## (2) 루터의 의인론

루터의 의인의 교리를 연구한 학자 왈트는 루터의 의인의 교리를 연구한 사상적 계승자로서 그의 의인을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로 보았으며 믿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의로 인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왈트는 루터의 의인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sup>74)</sup>

루터는 로마서 1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의는 “우리 밖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믿음 안에서 구체화되고, 그런 후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속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죄악과 죄성을 날마다 참회와 사죄를 통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sup>75)</sup> 루터는 성도를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구원 후 계속 성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대적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싸움은 이 땅 위에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의롭게 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의롭게 되어가는 자라고 말한다.<sup>76)</sup>

## (3) 루터의 교회론

72. 김익원, 사상속의 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87), pp.169-171.

73. 주도홍, 개혁교회사, (서울: 도서출판솔로몬, 1998), pp.98-99.

74. 김익원, 사상속의 사상, op. cit., pp.175-176.

75. 주도홍, 개혁교회사, op. cit., p.99.

76. Ibid, p.100.



교회에 대한 루터의 견해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수도사로 있을 때의 루터와 로마 제국의 의회와 황제 앞에 섰을 때의 루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1517년 개혁자의 모습으로서의 루터의 교회관에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루터의 교회론의 본질은 그리스도론과 구원론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론과 구원론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되며, 루터의 교회론은 종교개혁의 사상을 대변하는 중요한 교리로 취급된다.<sup>77)</sup>

루터는 교회를 “성도의 사귄” 혹은 “교제”라고 불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들로 이루어진 회중으로 부르고 있으며,<sup>78)</sup>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한 공동체가 된다. 교회의 본질, 삶 그리고 속성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모임이 아니라, 한 신앙 안에서 마음들의 한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신랑이 되는 아무도 가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선포되고 믿음에 의하여 받아들이는 것같이 교회도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성도들의 사귄에서 실제화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생명과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79)</sup>

루터에 있어서 교회는 전통이나 성직의 계급제도 그리고 어떤 의식을 집행하는데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보았던 것이다. 루터의 교회론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제도상에서 만들어진 성직계급 의식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수한 신앙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였다. 거룩한 백성들의 회합으로 교회는 주를 믿는 하나의 공동신앙에 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연구하는 일 그리고 전파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는 공동체로 인식하였다.

루터는 교회 안에 여직무가 있음을 시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77, 배한국 편,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93), p.194., 「지원용 박사의 논문집」.

78. Ibid., p.195.

79. Ibid., p.200.

그는 교회 안에 어떤 직책도 차별의 의미가 있어서는 안되며 다만 직무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데서 교회 안의 계급의식을 거부하였다.

루터의 만인제사장직의 이념은 물론 성서에 기초하고 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들이라”(벧전2:9)는 말씀은 루터에 있어 만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사장들이 된다는 사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는 교회가 가진 권한이 어떤 특권층에 집중되는 것을 비 성서적으로 확신하고 교회의 모든 권한은 회중 전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는 사제들이 하나님과 성도간에 어떤 중간 역할을 대신해주는 사제직을 불허했다. 1920년 11월에 루터는 「크리스찬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반 교인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당신은 물을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곧 사제, 수사, 영적인 것 및 성직자란 말들이 그것된 용법에 따라 모든 일반 크리스찬들로부터 현재 성직자들이라 불리고 있는 소수 사람들에게 잘못 적용되고 있다. 성서는 교황, 주교 및 군주하고 당당하게 지금 불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믿음과 크리스찬의 자유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들, 종들, 청지기들이란 명칭을 붙이기는 하나, 이런 칭호들을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는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제사장들이기는 하난 그렇다고 우리가 다 공적으로 봉사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기록하고 있다.<sup>80)</sup>

그런면에서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시인되어야 한다고 루터는 말한 것이다. 이러한 성도 하나 하나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모여진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성도들이 직접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예배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sup>81)</sup>

80. 지원용, 루터선집 제5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4), p.314.

81. 김익원, 사상속의 사상, op. cit., pp.199-201.

루터는 교회관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루터는 이 두가지의 의미를 완전히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이 두 용어는 두 개의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통일된 교회의 두가지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둘은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신앙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즉 “믿음의 교회”이다. 신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구속받은 성도들도 육안으로 확실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교회와 함께 성도들은 가리워져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 두 가지 교회가 있다거나 그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의 그룹이 있다거나 혹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로 간주하였고, 보이는 교회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활동에서만 아니라 거룩한 말씀에 의한 활동으로 구원의 성취를 갖다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교회로서 그러면서도 사탄의 나라와 싸워 이겨야 하는 역사적인 실체인 교회이다. 그러면서도 이 두 교회는 분리되지 않고 몸과 영혼과의 관계와 같이 유기적인 관계와 같다.<sup>82)</sup>

또 교회의 표식은 세례, 성찬, 복음이며, 거기에 직분 등이 언급되며, 특히 구체적으로 바른 말씀의 선포와 진정한 성례전의 집행으로 대표된다.<sup>83)</sup>

#### (4) 루터의 3대 논문

루터는 1520년 8월 개혁적인 신앙과 사상의 3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귀족에게 고함”, 둘째, “교회의 바벨론적 포로”, 셋째, “기독교인의 자유”이다.

① ‘독일 귀족에게 고함’은 1520년 8월에 발표된 것으로 루터는 교회, 대학들,

82. Ibid., pp.202-203.

83. 주도홍, 개혁교회사, op. cit., p.101.

정치적·사회적 생활 전반에 관한 개혁을 위하여 신학적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즉 영적 지도자들이 세속 지도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 제도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단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은 직능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84)</sup> 또 루터는 교황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로마주의자들이 3가지 담을 구축해 놓고 오랫동안 자신들을 방어해온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첫 번째 담은, 교황 및 주교들의 영적계급이 영주 및 농민들을 세속적 계급이라하며 자신들과 세속권리를 분리시키고 그들을 지배하였다. 두 번째 담은, 교황은 성서의 해석자이고 또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교황무오설’을 주장하였고, 세 번째 담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천사까지 다스린다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이것이 카톨릭의 부패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루터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둔 신앙과 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sup>85)</sup>

② ‘교회의 바벨론적 포로’는 1520년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루터는 카톨릭의 잘못된 ‘성례관’에 대하여 말하였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7성사는 부당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평신도의 포도주 잔을 성직자가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화체설’은 잘못된 교리이다. 또한 선행이나 제사의 표현으로 미사가 이해됨은 잘못된 것이다.<sup>86)</sup> 처음에 루터는 참회와 세례와 성찬을 3가지 성례로 보았으나, 후에는 세례와 성찬, 이 두가지만 인정하였다.

③ ‘기독교인의 자유’는 1520년 11월에 발표된 것으로, 바른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이중논제는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중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루터는 토마스 뮌처의 농민전쟁을 비판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법은 정치적 권위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복종을 하는 것이다.<sup>87)</sup>

## 2. 농민전쟁

84. Ibid, p.96.

85. 지원용 역,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1997), pp.28-49.

86. 주도홍, 개혁교회사, op. cit., pp.96-97.

87. 손규태,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뮌처, op. cit., p.29.

농민전쟁은 종교개혁 당시에 급격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479년의 한스뵘의 농민사회주의 운동, 1493년이래 지속되어 온 분트슈 운동, 1514년의 가난한 콘라드 운동 등 15세기를 통하여 독일내에는 농민들의 혁명이 빈번히 일어났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봉주들의 황포와 과중한 세금에 항거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이 일어나기 전 50년 경부터 농민 봉기의 가능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sup>88)</sup>

## 1) 발생배경과 원인

농민전쟁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시 독일의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당시에 사회적 불만이 가득 찬 계층은 기사계급과 노동자 계층, 그리고 농민들이었다. 기사계급의 경우 그들은 봉건사회체제속에서는 크게 행세를 했으나 사회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제후들과 중산층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중산층의 억압에 항거하였으며, 특히 남부의 농부들은 오랫동안 혁명으로 부르익어 오던 중 누구보다도 지주들과 제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이들 농부들은 루터의 복음설교와 교황청에 대한 비판 즉 성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레오 10세는 알버트와 마인쯔의 대주교가 징수를 맡고 도미니크파 수도승인 요한 테첼이 설교하면서 면죄부<sup>89)</sup>를 팔았는데, 테첼의 면죄부 판매가 비텐베르크 성 가까이에서 까지 진행되고 또 성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러 가는 것을 보면서 이같은 면죄부 판매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염려하였고, 또한 그것이 진정한 참회의 존속을 위협하게 하는 것을 느끼고 는 당시의 습관처럼 95가지의 논제를 라틴어로 써서 1517년 10월 31일<sup>90)</sup>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대문에 붙여놓고 토론을 제기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농민들에게 있어서

8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205.

89. 토마스 M. 린제이, 이형기 역, 종교개혁사(1), op. cit., p.226.

90. 학자들은 루터가 실제로 95개조항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성 교회의 문에 못박았는지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베른하르트 로제, 이형기 역, 루터 연구 입문, op. cit., p.72.)

루터의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루터가 성직자와 평신도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쳤을 때 농민들은 크게 감화되어서 루터를 환영하고, 루터의 지지자가 되었다.

농민들의 봉기가 있기 전 기사계급 쪽에서 먼저 항거가 일어났다. 이 계급의 대표 인물은 후텐과 지킹겐이었다. 후텐은 독일의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로마 교황청 세력을 제거하고 독일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인물이었다. 지킹겐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잃어가는 기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들은 결국 실패하였다.

이렇듯 계속되는 농민과 기사들의 소요는 사회적 동요를 낳았음에도 봉건제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을 줄 몰랐다. 오히려 상황은 농민들에게 더 불리해져, 법률가들은 농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sup>91)</sup> 그럼에도 농민들의 불만은 이어져 1524년 농민전쟁이 시작되었다.

## 2) 전개 및 발전과정

농민전쟁은 1524년 여름 전국적인 폭동으로서 라인수바벤, 상부 다뉴브, 스위스 국경에 연해 있는 상부 라인 지방에서 폭동이 시작되어, 1525년 폭도들은 주교들의 관저와 귀족들의 성과 수도원과 수녀원, 도서관을 불태웠고, 독일 남부<sup>92)</sup>와 서부와 중부로 확산되었다.<sup>93)</sup>

1524년 6월에 이르러서 루펜의 지기스문트 백작의 영지에 속하는 농민 1,000여 명이 용병출신의 한스 뮐러를 지도자로 하고서 지주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의 폭동은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콘스탄스 호수 주변의 알가우, 클레트가우, 헤가우, 빌링겐 지역의 농민들도 동참하였다. 폭동은 북쪽으로 번져서 저지대 슈파비아로 확산되었으며, 야콥 베헤가 주도하는 라이펜의 농민들이 슈파비아 동맹의 사령관이었던 트루크세스의 군대와 연합하였다. 잘스부르크, 스투리아, 티롤의 농민들도 가담하였으며, 특히 잘스부르크의 농민들은 추기경 대주교

91. 토마스 M. 린제이, 이형기·차종순 역, 종교개혁사(1), op. cit., p.122.

92. 오언 채드윅, 서요한 역, 종교개혁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60.

93. 필립 샤프, 엄성옥 역, 필립 샤프의 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4), p.356.

를 체포하였으며 1526년 봄에 이르러서 군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낸 다음에야 비로소 철수하였다.<sup>94)</sup>

쾨비카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다음으로는 알슈테트에서 쫓겨난 토마스 뮌처는 농민운동의 지도자가 되어 뮐하우젠의 농민군을 지휘하고 있었고, 1525년 3월 7일 12개의 조항을 선포하였다.

첫째, 시민 당국이나 교회 당국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 요구를 갖는다.

둘째, 목회자의 청빙의 자유와 축출의 자유

셋째, 대십일조는 의무로서 지킬 수 있으나 소십일조는 거부한다.

넷째, 대십일조에서 부락 사제의 급여를 감당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사용하라.

다섯째, 농노제도를 폐지하라.

여섯째, 적법한 명령에는 순종하겠지만 강압적인 명령은 거부한다.

일곱째, 낚시의 권리, 사냥의 권리를 갖는다.

여덟째, 삼림, 목초지 경작지를 지주로부터 찾아와야 한다.

아홉째, 모든 유형의 강제봉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열째, 모든 형태의 노력봉사는 정당한 임금의 지불이 있어야 한다.

열한째, 사망세의 명목으로 고인의 귀중한 동산을 압수할 수 없다.

열두째, 모든 지역에 공평한 재판소를 설치하라.

도시빈민과 기사들과 광산 노동자들까지 그들의 편에 합세함으로 큰 세력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sup>95)</sup>

농민들은 루터가 이 “12 조항”에 서명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 조항들은 성서에 의존하였고, 상당히 온건한 내용과 온건한 요구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이에 반대하여 「평화에의 권면 : 슈바비아의 농민들이 채택한 12조항에

94. 차종순, 교회사, op. cit., pp.275-276.

95. 임영천, “개혁자 루터와 독일 대농민 전쟁 (1)”, 1984년 4월호, p.153.

대한 대답」에서 국가와 농민 양측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농민혁명의 책임이 우선 국가에게 있다고하여 제후들을 비판하고, 나아가 농민들의 봉기와 뮌처 같은 혁명적 개혁자의 등장은 제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다. 루터는 결코 자기의 신학이 농민전쟁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고, 제후들에게 옹고집의 폭군 노릇을 버리고 농민들을 잘 다스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농민들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뮌처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며, 주님의 이름을 망녕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루터는 국가 내지는 세속 권력은 하나님이 그의 섭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항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항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루터는 통치자가 아무리 약해도 이것이 혁명을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보수주의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결국 국가자체가 하나님의 칼을 들었으니 지배자 계급의 악행은 이 국가의 칼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속권 내지는 관료직을 박탈하려는 농민들도 강도요 농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국가의 관료들도 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이 봉기했고 유혈사태를 지켜본 루터는 중도적 입장을 바꾸어 농민을 부정적으로 보고 제후들의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의 진압을 권고하는 1525년 5월에 쓴 「강도와 살인을 일삼는 농민에 반대하여」라는 글에서 제후들의 진압에 당위성을 제공하면서 농민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sup>96)</sup>

루터의 신학적 훈계는 즉시 제후들의 무력사용을 요청케 하였다. 독일 농민 300,000명이 폭동을 일으켰다. 4월 16일에 농민들은 와인스벡을 강타하였으며, 그곳의 거주자들을 대량학살하였다. 성채들과 수도원들이 약탈되고 방화되었다. 토마스 뮌처와 다른 과격한 농민 설교가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육을 요청하였다. 루터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을 귀족들에게 말하였고, 독일귀족들, 루터파, 카톨릭들이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있어서 연합하여 5월 15일에 프랑켄하우젠에서 50,000명의 농민들이 곤봉과 쇠갈퀴리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스와이비안 군대들이 금요일에 사천명을 죽였으며, 150명의 손실을 내면서 월요일에는 8천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다. 로텐바그에서 17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했고 그들의 시체가 시

96.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p.205-209.



장거리에 하루종일 널려 있었다. 잠정적인 통계로도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sup>97)</sup>

시간이 흐를수록 농민들은 분열되었고, 기사들은 이탈하였으며, 전의를 상실하고 계속 패배하였고<sup>98)</sup>, 1525년 5월 15일 프랑켄하우젠에서는 1만명에 달하는 뮌처의 무리들이 헛세, 작센 및 부룬스빅의 연합군에 의하여 제압되었다. 뮌처는 도망치려다가 체포되었고<sup>99)</sup> 뮐하우젠으로 압송되어 혹독한 고문에 굴복한 뮌처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1525년 5월 27일 처형을 당하였다.<sup>100)</sup> 1525년 6월쯤에는 거의 모두 진압돼 버리고 말았다. 살아남은 농민들은 참수되거나 병신이 되었다. 그로 인해 생겨난 과부들과 고아들은 빈곤한 상태로 버려졌다. 100개 이상의 성과 수도원이 폐허가 되었고, 수백개의 마을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졌으며, 가축들은 죽임을 당하고, 농기구가 파괴되었으며, 모든 지역이 황무지로 초토화되었다.<sup>101)</sup>

농민전쟁은 루터에게 많은 손실과 오해를 야기하였다. 농민들의 요구에 대한 루터의 소극적인 태도와 농민들에 대하여 탄압하라는 그의 권고는 많은 지지세력을 잃어버렸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재세례파로 떨어져 나갔고, 급진주의자들로부터는 소극적이고 세속적 국가권위에 의존하는 개혁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농민전쟁이 거의 종결되던 1525년 6월 13일 루터는 케더린 폰 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에라스무스와 카톨릭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다. 루터는 1526년 6월 7일 처음으로 득남한 후 5남매를 두었고 농민이 중심이 된 하층민의 농민운동으로서의 개혁의 요구는 크게 압박되었으며, 루터 개인으로는 대중적지지 기반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다.<sup>102)</sup> 루터에게 실망한 일부의 농민들은 재세례파로 넘어갔고 일부는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하기도 하였다. 농민전쟁의 영향으로 루터의 교회관은 1526년을 전후하여 국가교회에로 변화되었다.

찰스 황제가 교황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국회는 종교 개혁을 관용하는 법령

97. Clyde L. 맨슈랙, 심창섭·최은수 역, 세계교회사, pp.304-305.

98. 임영천, 개혁자 루터와 독일 대농민전쟁(1), op. cit., p.155.

99.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 cit., p.210.

100. 이상규, 교회개혁사, op. cit., p.72.

101. 필립 샤프, 엄성옥 역, 필립 샤프의 교회사, op. cit., p.359.

102. 이상규, 교회개혁사, op. cit., pp.72-73.

을 내려 영주의 선택에 따라 개신교와 카톨릭을 따를 수 있게 하였다. 영주의 신앙에 따른 신앙 자유의 원칙은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회의에서도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개혁운동이 호전되자 1529년에 모인 국회에서는 관용령에 의해 1526년에 루터파 신앙이 관용된 지역 이외의 개혁운동은 허락할 수 없음을 결정했다. 그래서 개혁세력들은 반대를 하였고, 이 결정에 항의하는 무리를 카톨릭 교회에서 항의자 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다.<sup>103)</sup>

이 독일 농민 전쟁의 패배와 참상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상실하게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 비하여 정치적으로 정체되고, 낙후되므로 후진성을 면치못하게 되었다. 또 국내 자본주의의 발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민족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영방지역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문화 발전 또한 지연되었고, 시민 계급의 성장이 지연되어 봉건적 군소 군주국의 지배를 받는 일이 19세기까지 연결되었다.<sup>104)</sup>

### 3) 뮌처의 사상과 개혁운동

#### (1) 뮌처의 생애

뮌처는 1490년 12월 21일에 태어나 1925년 5월 27일까지 산 인물이다. 뮌처는 독일의 급진적 종교개혁자이며 1525년에 일어난 농민 전쟁의 지도자며, 재세례파이다. 뮌처는 1488년 12월 21일 색슨지방 하르쯔 산맥 기슭에 있는 스톨베르크에서 화폐 주조공의 아들로 출생했다. 그는 어머니가 물려 준 유산으로 경제적인 별 어려움 없이 대학 공부까지 마친 그의 학창 시절은 루터에 비해서 훨씬 윤택하게 보내었다. 1512년에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고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웠고 그 후 어머니의 간청으로 젊은 나이에 신부가 되었다.<sup>105)</sup>

스톨베르크 태생인 뮌처는 라이프지히와 프랑크푸르트에서 수학하고, 1514년 5월에는 성 미가엘 교회의 교구 신부로 초빙되어 일하다가 나중에 프로세의 수도원으로 옮겨갔고, 1518년 가을까지 재직하였다. 1519년 4월 뮌처는 쥘트북크로

103. 김익환, 기독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p.264.

104. 임영천, 개혁자 루터와 독일 대농민전쟁(1), op. cit., p.155.

105. 김익환, 사상속의 사상, op. cit., p.255.

가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 시무하였고, 피오레의 요아킴, 후스, 마르틴 루터 등의 영향을 받아 1520년 에그라누스를 대신하여 쾰리히의 성 메리 교회에서 시무하며 설교하였다.<sup>106)</sup> 이때 그는 강력하고 과격한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문주의자이던 에그라누스와의 격론 끝에 쾰리히를 떠나 프라하에 가서 그곳에서 라틴어, 독일어, 체코어로 된 선언문을 출판하여 많은 사람들을 자기편으로하여 큰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1523년 알스테트의 한 작은 마을에 가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의식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자들을 모아 일단의 집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한때 마르틴 루터의 제자이기도 하였던 뮌처는 비텐베르그에서 루터와의 견해 차이로 그 사이가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루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적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미사 예식에서 독일어로 모든 예식의 순서를 진행시키고 노래로 예배의식을 한층 더 경건하게 하였던 그의 천재적 재능과 열심은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평소에 빈민들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종교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오던 뮌처는 결국 자기 자신을 농민전쟁의 지도자로 앞세우고 실제적인 혁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프랑켄하우젠 전투에서 패배함과 동시에 포로가 되어 심한 고문과 박해 끝에 결국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고문에 못이겨 카톨릭 교회와 화해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비록 그가 영도하던 농민전쟁이 실패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학 사상은 급진주의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어 그에게서 감화를 받은 자들이 재세레파를 구성하였다. 또한 그가 성서에 근거한 성령의 감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sup>107)</sup>

## (2) 뮌처의 사상

뮌처는 1521년 11월 1일에 소위 '프라그 선언'을 발표하여 루터의 개혁 사상보다 훨씬 과격한 신학적 성격을 가진 내용으로서 독일어, 라틴어, 체코어로 된 이

106. Ibid, p.255.

107. 그리스도교 대사전 편찬위원회, 그리스도교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년 7월), p.343.

선언문에서 그는 당시 로마 교회의 성직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중세기 독일 신비주의를 지지하고 있었다. 1524년 초에 쓴 팜플렛에서 뮌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종’으로 표현하였고, 유아 세례를 전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진정한 세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행해오는 외적 행위로 이행되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내적 경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역설하였으며 더군다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선택된 자들이라 믿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선택된 자들로서 신정 정치의 구가를 위하여 현존하는 정치적, 사회적 체제를 무력과 혁명으로 전복시켜야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sup>108)</sup>

### (3) 뮌처의 개혁운동

#### ① 천년 왕국의 종말론 사상

토마스 뮌처는 ‘민중’과 함께 투철한 ‘민중 의식’을 보여 주었다. 그는 정치 권력이 귀족으로부터 ‘민중’에게로 옮겨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와 평등이 없는 현존의 체제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상하의 계급도, 빈부의 차이도 없어질 것이요 완전한 민주적인 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sup>109)</sup> 뮌처가 말한 천년 왕국의 상태는 초대 교회 교인들이 같이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였던 상태와 같은 왕국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런 시대가 오면 신부나 제후 귀족들의 사유 재산이란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와 같은 천년왕국 시대가 지체될 경우에는 선택 받은 기독교 원리에 의하여 폭력과 혁명으로 사회를 변혁시켜 천년 왕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종말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는 소명감에 젖어 있었으며, 그러한 예언자인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특별하신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모든 불의의 권력들에 대항하여 끝까지 투쟁해야한다고 확신하였고, 요아킴의 묵시적 종말사상에 영향받은 예언자로서 마지막까지 농민들에게 승리의 굳건한 믿음을 심어 주었다.<sup>110)</sup>

108. 김익원, 사상속의 사상, op. cit., pp.256-257.

109. 임영천, "개혁자 루터와 독일 대농민전쟁 (1), op. cit., p.180.

110. Ibid., p.180.

## ② 성령주의와 선민사상

루터의 사상이 철저히 성서에 근거한데 비해 뮌처의 사상은 성령에 근거한 성령주의자였다. 뮌처는 구원 교리에서도 루터와 대조된다. 루터의 구원 교리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칭의로 구원되는데에 반대하여 뮌처에게서는 성령의 체험으로 신자는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칭의는 내적인 거룩함이 신자의 순종을 통하여 외형상으로 드러날 때 완성된다는 것이었다. 참된 신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변화된 삶을 영위하며, 참 신자의 삶은 불경한 자들과 대항해 싸우는 금욕적이며 경건한 삶에 의해 특징지어 진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뮌처사상은 루터와는 대조되며 뮌처의 구원 교리에는 개인 구원뿐 아니라 사회 구원 사상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으로 부각된다.<sup>111)</sup>

뮌처에게는 카톨릭교의 지나친 외적 세례 의식은 자연히 무시되어 반대로 성령의 세례가 중시되어진다. 뮌처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오시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였다. 성령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 자격자로 보았고 개인에게 어떠한 의인이나 성령의 체험을 갖게하는데 아무런 확신도 카톨릭교에서는 주지 못했으며, 루터는 의인의 확신은 주었지만 선택의 확신은 주지 못했으며 칼빈은 의인과 선택의 확신까지 주었다는데서 그 누구보다도 칼빈의 공로를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뮌처와 자기 추종자들을 가리켜 선택된 자 중에서 다시 선택된 자들이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선택된 자 중에 선택된 자기 무리들로 '선민 동맹'<sup>112)</sup>을 결성하여 이들의 혁명 활동을 통해 지상 천년 왕국의 건설을 시도한 것이다.<sup>113)</sup>

## ③ 신의 계시에 의한 정치사상

111. 권진관, "토마스 뮌처의 윤리사상" 『기독교사상』, 1991년 10월호, pp.102-103.

112. 선민 동맹은 일종의 비밀 군사 조직으로 성령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뮌처는 이 선민 동맹을 농민들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농민을 통해 이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의 반란은 신의 일이며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박양식, "토마스 뮌처의 천년왕국주의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36 재인용)

113. 김익원, 사상속의 사상, op. cit., p.258.

뮌처의 사상 주에서 우리는 역시 신의 계시에 의한 정치, 즉 신의 계시를 받은 자가 신의 뜻을 따라 신을 대신하여 정치한다는 신정 정치 사상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시대를 바탕으로 한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져다고 말하였으며, 카톨릭은 성례전에 기초한 신정 정치였다면 뮌처는 철저히 개인적 예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14)</sup>

1523년 루터는 그의 정치관을 “지상권력”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교회로부터 독립한 지상 권력의 신적 기원에 대한 성서적 보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영역에 대한 루터의 궁극적 구별은 루터의 두 왕국론 사상에서 핵심을 이룬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참 성도들이다. 진실로 참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고 세상 모두가 악하므로 힘과 율법을 가진 정부는 인간을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권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권력을 통하여 그의 이웃에게 봉사한다.<sup>115)</sup>

이 지상 권력 외에는 인간 사회의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 검과 법을 가진 정부만이 무질서를 해소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루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통치자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성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루터의 주장은 그 절대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신민들과 마찬가지로 세속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는 루터의 주장이다.<sup>116)</sup>

#### ④ 혁명적 이론

토마스 뮌처의 혁명 사상은 만민은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되고 있다. 이 평등의 원리를 위배한 사회, 경제, 종교상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현상을 뮌처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 단정하고, 폭력과 혁명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혁해야한다는 자신의 혁명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자신이 직접 농민반란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이

114. Ibid.

115. J. M. 포터, 홍치모 역, 루터의 정치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85), pp.14-15.

116. Ibid, pp.15-17.

론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뮌처는 이러한 사상은 분명히 성서에서 위배됨은 사실이다. 성서는 언제나 정당한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목적에 이르도록 교훈하고 있다.<sup>117)</sup>

그러나 뮌처에게 있어서는 원인과 방법은 하등에 문제시하지 않고 다만 목적에만 집착되어지고 있는데서 그의 사회 혁명 사상은 오늘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만민 평등 사상이 루터의 만민 제사장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4) 루터와 뮌처와의 관계

### (1) 루터와의 협력관계

루터와 뮌처의 관계에서 뮌처는 라이프치히 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라이프치히 시절에 그는 루터의 호의로 1520년 츠비кау 시 목사로 추천되었다. 그러나 1년이 못 되어 그만두고 그 후 츠비кау 예언자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았으며 1521년 츠비кау를 떠나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로 갔는데 이곳에서 그는 루터의 제자로 받아들여졌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뮌처의 혁명 운동의 기본사상은 루터의 '만민제사장제도'와 크리스찬의 자유사상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혁명적 운동에 이용하였다.<sup>118)</sup>

이렇듯 루터와 뮌처는 상호 존경의 기간에서부터 시작된 관계는 1519년에 종지부를 찍었다.

### (2) 뮌처와의 논쟁

뮌처와의 논쟁에서 루터는 그래서 그 자신의 신학의 중요한 요점과 관점들을 더 심화 발전시키고 더욱 더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이것은 정부에 관한 이론은 물론이고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의 교리에 있어서도 특히 그렇다. 그러나 루터

117. 김익원, 사상속의 사상, op. cit., p.259.

118. Ibid, p.261.

는 1521년에 발간된 「마리아의 찬가」의 해석에서 여전히 나타난 특정한 성령주의적인 사상들을 더 이상 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루터는 이러한 사상들이 급진적인 성령주의자들이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 사상들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해야만 한다. 이 정도까지 뮌처와의 갈등은 루터로 하여금 루터 자신의 반대를 강화하도록 만들었으며 반대를 더욱 편협하게 정의하도록 하기도 하였다.<sup>119)</sup> 처음엔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조심스런 과정으로, 그리고 나서는 마침내 서로가 상호간의 증오의 결과에 이르는 예리한 논쟁으로 변해갔다.

뮌처는 루터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그 자신의 신학의 형태와 형상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더욱 의미있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루터는 뮌처가 열광주의에 빠져있었고, 또 열광주의적 복음의 왜곡, 율법과 복음 사이를 구분한 종교개혁 신학의 혼동, 정부의 권위를 거부하는 폭동, 그리고 또한 모든 세속적 질서와 공공의 평화에 대하여 위협을 하면서 거부하는 것을 비판하였다.<sup>120)</sup>

### (3) 뮌처의 공헌

우리는 개신교 예배에서 초기 발전들에 있어서 뮌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1523년에 루터보다 더 일찍 뮌처는 라틴식 미사예전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그 과정중에 종교개혁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삭제하였다. 그는 또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기도문으로 사용되었던 ‘성무일도’의 기도문을 다시 구성하여 매일의 예배 때 그의 규칙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또한 새로운 예배순서들을 출판하였고, 여기에다가 그는 약간 잘 알려진 라틴 찬송가를 번역하였고 그렇게 하여 개신교 예배에서 회중 찬양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해서 뮌처는 개신교 예배와 복음주의적인 찬송가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sup>121)</sup>

뮌처는 수백년 동안 루터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렇게 오랜동안 일반적이었던 뮌처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크게는 멜랑히톤 뿐만 아니라 루터에 의해서

119. Ibid. p.91.

120. 베른하르트 로제, 이형기 역, 루터 연구 입문, op. cit., pp.90-91.

121. Ibid.



그리고 루터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려졌다. 이 묘사에서 뮌처는 모든 세속 질서의 파괴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로서 나타났다.

최근에 뮌처연구에서 우리는 이제 뮌처의 입장이 왜곡되어 제시된 것보다는 루터가 이런 연구들에서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2)</sup>

---

122. Ibid, p.92.

## V. 결 론

십자군 전쟁과 지리상의 발견은 유럽인의 세계관을 전환시켰고, 미술과 문학가들에 의하여 주도된 르네상스 정신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에게로 돌려놓았다. 교황권이 쇠퇴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로 바뀌었다.

16세기에는 중세 장원경제가 몰락하고, 도시의 출현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상업이 활기를 띠고 농민의 생활이 향상되었고, 장원경제에서 상업자본주의 중심이 되는 도시경제로 전환하였다.

15세기 후반에는 흑사병과 기근으로 흉년이 발생한 농민의 삶은 비참하여 사회적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가난한 농민출신의 한스 뷔른 교황을 반대하고 연옥을 부인하였다. 또 가난한 농민편에 서서 제후와 군주들에게 대항하는 사회적인 봉기인 분트슈 운동이 일어났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의 신분보장이 철회되었을 때 분트슈 운동으로 루터의 신분은 보장되었고, 루터의 개혁운동의 지지세력이 되었다.

교황청은 면죄부의 판매와 각종 종교세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당 문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못박았다. 루터가 게시한 내용은 요한 테젤이 교황의 명을 받아서 면죄부를 판매하러 다니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95개조의 논제는 루터가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지지자가 늘어갔다. 또한 삭소니의 제후 프레드릭이 루터의 후원자가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프레드릭은 정치적 역량이 컸고 그의 보호아래에서 루터는 안전하였다.

루터는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로마주의자들의 3가지 담에 대하여 비판하므로 정면으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워스 회의에서 루터에게 체포하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루터가 은둔해 있는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취하려는 급진파들이 출현하였고, 칼슈타트와 쾰리히 에언자들이 제휴하여 사회적인 혁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기사 반란이라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기사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토마스 뮌처는 뮐하우젠에서 농민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기사 계급과 농민 계급의 끝없는 저항과 반란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였던 개혁운동과 토마스 뮌처의 개혁운동은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다.

루터는 중세 신비주의자인 에크하르트와 그의 제자 타울러에게 영향을 받아서 루터의 '만인사제론'이 탄생하였다. 또 루터는 시편 연구와 로마서 연구를 통하여 이신칭의 사상을 기초원리로 하여 카톨릭 교회의 사상과 제도, 그리고 가르침에 반대하는 개혁사상을 전개하였다. 루터의 개혁사상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이 카톨릭 교회와 관청에 공격을 가함으로 농민전쟁이 시작되었다.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편찬하였고, 전독일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루터의 개혁사상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하였고, 하나님의 지상대리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황에 반대하여 교회보다 성경에 더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루터의 이신칭의 사상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례전 제도에 타격을 가하였다. 루터는 구원이 성례전의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카톨릭의 7가지 성례전을 부인하고,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였다. 또한 루터는 만인제사장 제도로 로마 카톨릭의 성직제도에 타격을 가하였다.

루터의 복음설교와 교황청에 대한 비판, 즉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이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으로 수용되었고, 루터가 성직자와 평신도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르쳤을 때 농민들은 루터를 환영하고 그의 지지자가 되었다. 기사들의 항거와 농민들의 반란은 사회적 동요를 야기하였음에도 봉건제후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고수하였다. 그래서 농민전쟁은 전국적인 폭동으로 확산되었다. 나중에는 전세가 불리하게 되어 농민들은 분열되고, 기사들은 이탈하였으며, 뮌처는 사망하였고, 계속되는 패배로 인하여 농민전쟁은 진압되고 말았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농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루터는 뮌처와 농민전쟁을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루터는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루터와는 달리 뮌처는 무력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점이 루터와 뮌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 \* 참고문헌 \*

### 1. 국내서적

- 지원용, 「루터선집」 제5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4.
- 김익원, 『사상속의 사상』, 서울: 성공문화사, 1987.
- 박경민, 『크리스트교사』, 서울: 도서출판 청수, 1999.
- 배본철, 『기독교회사』, 서울: 성지원, 1995.
- 이상규, 『교회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7.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5.
- 임도건, 『종교 개혁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지원용, 『말틴 루터 생애와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_\_\_\_\_,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92.
- \_\_\_\_\_ 역,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1997.
- 주도홍, 『개혁교회사』, 서울: 도서출판솔로몬, 1998.
- 차종순, 『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6.

### 2. 번역서적

- A. E. 맥그래스, 박종숙 역, 『종교개혁사상입문』, 서울: 성광문화사, 1998.
- 브라이언 타이어나/시드니 페인터 공저, 이연구 역, 『서양중세사』, 서울: 집문당, 1997.
- 베른하르트 로제, 『루터 연구 입문』,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시드니 휴튼, 정중은 역, 『기독교 교회사』, 서울: 나침반, 1997.

- Clyde L. 맨슈랙, 심창섭 • 최은수 역, 『세계교회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6.
- J. M. 포터, 홍치모 역, 『루터의 정치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85.
- 롤란트 베인톤, 이종태 역, 『마틴루터의 생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루이스 W. 스피츠,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토마스 M. 린제이, 이형기 • 차종순 역, 『종교개혁사(1)』,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6.
- 윌리스턴 워커, 강근환 외 3인 공저,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오언 채드윅, 서요한 역, 『종교개혁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필립 샤프, 엄성옥 역, 『필립 샤프의 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4.

### 3. 국내 논문

- 손규태,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뮌처”, 『기독교사상』, 1990년 10월호, 통권 382호, 제10호, 제34권, pp.27-34.
- 지인성, “중세사회운동과 종교개혁”, 『기독교사상』, 1983년 11월, 통권 제305호제11호, 제27권, pp.35-41.
- 배한국 편, “루터와 종교개혁”, 『지원용 박사의 논문집』, 서울: 컨콜디아사, 1993.
- 임영천, “개혁자 루터와 독일 대농민 전쟁(1)”, 1984년 4월호, 통권 제310호, 제29권, pp.138-155.
- 그리스도교 대사전 편찬위원회, 『그리스도교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년 7월 제10판.

- 권진관, “토마스 뮌처의 윤리사상”, 「기독교사상」, 1991년 10월호, p.101.
- 박양식, “토마스 뮌처의 천년왕국주의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